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공천 광주시민 40%가 “잘못됐다”

민주당 공천 평가

민주당이 지난 한 달여 간 걸쳐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공천 파동을 겪었지만, 이번 광주일보-KBC 광주방송 여론조사에서 광주시민 47.0%는 이번 민주당의 선거인단(모바일) 투표를 통한 공천이 ‘잘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매우 잘못됐다’는 응답자는 10.4%에 그쳤다. ‘대체로 잘못됐다’는 답변이 36.6%였다.

선거인단 투표를 통한 공천이 ‘잘못됐다’는 응답자도 39.9%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매우 잘못됐다’는 답변이 15.8%였고, ‘대체로 잘못됐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4.1%였다.

지역별로는 공천 잡음이 가장 심했

던 서구 갑과 서구 을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서구 갑의 경우 ‘잘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41.1%에 그친 반면 부정적 평가는 46%에 달했다. 서구 을도 긍정적 평가(41.6%)보다 부정적 평가(44.3%)가 더 높았다. 이는 ‘공천 잡음’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구 갑은 중앙당이 현역 의원 컷오프와 함께 남상 후보들을 배제한 뒤 ‘여성 공천지역’으로 분류하고, 광주에서 가장 늦게 공천자를 확정하면서 ‘공천 잡음’이 가장 심했던 곳이다. 서구 을 선거구 또한, 경선 후보 2명을 결정할 땐 뒤늦게 야권연대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일부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심했다.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투신 자살’ 사건 발생으로 인해 중앙당이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동구의 경우는 긍정 평가(43.9%)와 부정평가(42.9%)가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잘못됐다'는 긍정 평가가 가장 높은 곳은 광산갑으로 나타났다. ‘잘됐다’는 응답이 56.4%로, 8개 선거구 중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 응답결과는 30대(‘잘됐다’ 44.1%, ‘잘못됐다’ 45%)에서 부정평가 오차범위(±1.1%)포인트 95% 신뢰수준) 내인 0.9%포인트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20대~40대에서 상대적으로 부정평가 의견이 높았고, 60대 이상은 긍정평가가 54.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54.6% 1위 ... 1월 대비 9.6%P 하락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54.6%로 단연 선두를 달렸다. 하지만, 지난 1월 광주일보 여론조사의 민주당 지지율(64.2%)에 비해서는 무려 9.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이번 민주당 국민경선 등 공천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지역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 이어 ▲통합진보당(11.6%) ▲새누리당(9.8%) ▲정통민주당(2.8%) ▲자유선진당(1.6%) 순이었다. 국민생각과 진보신당은 각 1.4%의 지지율을 얻었고, 지지 정당 이 없다고 답한 응답률은 16.8%였다.

민주당은 광주지역 8개 지역구에서 모두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이 중 광산갑(59.5%)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야권연대 지역으로 확정된 서구 을(51.0%)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19세~20대(49.9%)와 30대(45.8%)에서 50% 이하로 지지도가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11.6%의 지지율을 얻으며 2위로 올라선 통합진보당은 지난 1월 여론조사의 지지율(4.2%)에 비해 7.4%포인트 오르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만에 지지율이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는 동구(7.0%)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고, 광산을(14.5%)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통합진보당은 또 30대에서 19.5%의 지지율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한나라당)의 지지율도 지난 1월 조사(6.0%)보다는 3.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이 후보로 나선 서구 을의 지지율이 13.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신생 정당인 정통민주당이 2.8%, 국민생각은 1.4%의 지지율을 보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8000명 임의번호 걸기 방식

조사 어떻게 했다

광주일보가 KBC 광주방송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지지도와 민주당 공천에 대한 지역민 여론, 정당 지지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방법=여론조사 전문가인 ‘리서치 뷰’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ARS RDD(Random Digit Dialing·임의번호 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지역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0명(선거구당 1000명)의 유효표본을 생성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8곳을 대상으로 한 RDD 여론조사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조사대상 선정=이틀간 조사에 투입된 ARS 회선 수는 연 2760채널, 발송전화 횟수만 72만6469통에 달했고, 전화를 받은 수신자는 22만319명

이었다. 총 통화시간은 1098만9555초(약 18만3160분)에 달했다. 또, 8곳의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각 1000명의 정량표본(성·연령·지역·유권자비례)을 얻기 위해 표집된 표본 수(결 응답자)는 1만1196명이었다. 광주 응답자 8000명 중 KT 등재 인원은 2661명(33.3%)이었으며, 비 등재 인원은 5339명(66.7%)이었다.

RDD 방식=RDD 방식은 광주 지역의 고유번호인 ‘062’의 지역 번호를 이용, 컴퓨터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뒤 무작위 추출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KT에 전화번호가 등재되지 않은 유권자들까지 조사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반 ARS 여론조사보다 정확성이 높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광주 지역 평균조사 ±1.1%포인트(95% 신뢰수준), 국회의원 지역구별 조사는 ±3.1%포인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재외국민 투표 내일부터 돌입

내달 2일까지 실시

4·11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28일(현지시각)부터 전세계 177개국 158개 공관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돼 다음달 2일 일제히 마감된다.

현재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의 5.5%인 12만3571명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국내 주민등록자 10만2519명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하나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 2만1052명(거소신고자 1116명 포함)은 비례대표 투표권만 행사하게 된다.

이번 재외투표는 뉴질랜드(오克蘭드 분관)와 피지에서 28일 오전 8시(한국시간 28일 오전 4시) 처음 시작돼 다음달 2일 오후 5시(3일 낮 12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최종 마감된다.

다만 선거인수가 적은 이스라엘, 가봉, 나이지리아(라고스분관), 파나마 등 4개국은 29일부터, 그리고 파키스탄, 루마니아, 노르웨이, 짐바브웨 등 39개국(41개 공관)은 30일부터 각각 투표가 시작된다.

투표지는 내달 3일부터 국내로 회송돼 해당 시·군·구 선관위에서 보관하다가 11일 국내 부재자투표지와 함께 개표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인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우편, 전화, 이메일을 통해 투표 일정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연협뉴스



총선 현수막 4·11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26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광주시내 곳곳에 내걸어 선거 분위기를 띄웠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명숙 대표 오늘 광주에

시당 선대위 출범식 참석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27일 4·11 총선 지원을 위해 광주·전남을 방문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나주·화순 배기운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뒤 광주 북구를 정당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다.

이어 오후 2시30분에는 광주 서구 갑 박해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4·11총선 민주당 광주시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광주·전남지역 유력 여성후보인 박 후보를 격려하고 총선승리의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한 대표는 선대위 출범식이 끝난 뒤 곧바로 선대위 1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오후 3시에는 광주 서구 갑 정당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 서울 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 등 모두 3건을 신고해 189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선관위는 또 담양·곡성·장성지역 예비후보자를 초청하고 선거구민 8명에게 11만여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도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불법선거 첫 포상금 1890만원

식사·활동비 87만원 신고

전남도선관위 지급 결정

4·11 총선과 관련, 전남에서 불법선거 신고자에 대한 첫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유사기관 설치와 식사비 제공 등을 신고한 A씨에게 18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서 이번 총선 관련해 포상금을 받은 것은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강진·영암·장흥 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아파트를 임대, 선거운동 장소로 사용하고 식사비로 27만원을 제공받

은 사실과 활동비 60만원을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A씨는 또 예비후보자 측근인 D씨가 출판 기병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 등 모두 3건을 신고해 189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선관위는 또 담양·곡성·장성지역 예비후보자를 초청하고 선거구민 8명에게 11만여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도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혁신도시 _ Green Energypia City

광주전남 혁신도시 비전 가시화!

2012년, 2만여세대 빛가람이 열립니다!

주택단지의 본격적인 분양과 함께 15개 공공기관의 활발한 이전준비! 선택된 도시의 자부심과 고급격생활이 프리미엄을 높입니다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상생의 녹색생명 도시!

Green Energypia City

호수공원과 골프장이 어울린 명품신도시

사업개요 나주시 금천·삼포면 일원 / 면적 733만㎡ / 수용인구 50,000명(20,000세대) 개발비전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서남경제권을 리드하는 문화수도 주거환경 중앙호수공원, 전국 혁신도시 유일 골프장 등을 갖춘 생태·레저 주거도시

15개의 공공기관 이전(임직원 7천여명)으로 개발가치 극대화

에너지(4)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정보통신(4) 우정사업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농생명(4)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식품안전관리, 농수산물유통공사 문화예술(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LH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빛의만평

- 김중두

후보 20% ... 기가 딱 막히는군